

# 安重根 義士를 題材로 한 중국 詩歌 연구 I \*

— 시가 개관과 안중근 애도·찬양 내용을 중심으로

최형욱 \*\*

## 〈目 次〉

1. 서론
2. 중국의 '안중근' 제재 시가 개관
3. 안중근에 대한 애도와 찬양 내용 분석
  - 1) 애국심·독립심 고취 모범으로 애도·찬양
  - 2) 항일의식 고조 분위기 하에서 동지적 애도·찬양
4. 결론

## 1. 서론

1909년 10월 26일 벌어진 안중근 의거는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대사건이 었음은 물론 중요한 문예의 제재이기도 하다. 안중근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많은 중국인들이 안중근을 애도·찬양하고 나아가 각종 문예 작품과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감정과 인식을 표현했다. 저명인사로는 梁啓超·袁世凱·孫文·陳獨秀·蔣介石·周恩來·蔡元培 등등이 그러했다. 이들 중국 지도자들 중에서도 중국 근대 變法維新의 영수 량치차오의 경우는 안중근 의거 직후부터 특히 많은 시가와 문장 가운데서 안중근과 그 의거를 기록하고 평가하고 노래했다. 이를 통해 국적과 상관없이 한 나라 국민으로서의 강건한 국민성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리더십을 적극 선양하고자 했다. 량치차오 등 정치적·문학적 영향력이 지대했던 인사들이 안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8203).

\*\*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중근에 대해 문예 작품화를 선도함으로써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194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저명 정치가·문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지식인 및 학생들도 애국혁명 및 항일국방의 분위기 속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 안중근을 추도하거나 그 인물 및 사상을 소개하는 문장들을 발표하고, 시·소설·극본 및 영화 등 문예 작품으로써 그를 찬양했다. 신문잡지에 투고한 문장 단계에서 더 나아가 傳記에 이른 것도 많았다. 그중 전기의 경우는 한중 사학계에서, 소설의 경우는 문학계에서 비교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詩歌<sup>1)</sup>의 경우는 안중근의 위상에 비하면 관련 정리와 연구가 아직 미미한 편이다.

근래 모 대학 사학과와 한 교수가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하이 훙커우 공원(현 루쉰 공원)에서 이른바 도시락 폭탄 의거를 일으킨 인물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중고생 약 40%가 ‘안중근’ 의사로 잘못 답했다고 한다.<sup>2)</sup> 배타적이고 맹목적인 민족주의는 경계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역사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학을 비롯한 외국학 연구와 교육도 그 자체에 대한 공헌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수천 년 유구한 문화교류를 해온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아울러 살피는 동아시아적 시각이 매우 유효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찾아보니 항일애국지사 안중근·윤봉길·이봉창 등은 한국인이었지만 중국인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기억과 사유 그리고 정서가 있는 역사 인물이고 문예의 중요한 제재였다. 또 앞으로 시대상황에 따라 다시 소환되어 그들의 입장에서 재평가되고 새로운 문예창작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

주지하듯이 중국은 안중근 의거 전부터 오랜 기간 먼저 근대화한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인해 ‘중화’의 자존심이 짓밟히며 피동적인 근대화의 길에 들어섰다. 사실 한국에 버금가는 큰 수모를 당하고 이픔을 겪은 중국인들의 인식과 정서 속에

1) 詩와 더불어 중국 韻文의 다른 종류인 詞 형식으로 지어진 것들도 있다. 시와 사를 함께 포괄하여 연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는 詩보다 포괄적 개념인 詩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 상명대 주진오 교수의 설문조사 관련 논의 참고.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 2016.5.18.)

서 우리의 어떤 항일애국지사들이 어떻게 문예작품으로 승화되었는지 그 자료들을 최대한 발굴하고 정리하고 번역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연구 및 저술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인들이 ‘安重根’ 및 ‘하얼빈 의거’를 제재로 지은 시가들을 넓고 깊게 분석하고자 한다. 문예면에서는 물론 사료로서 또 문화교류 자료로서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중일 삼국은 상대방의 시각으로 서로를 비춰보면 스스로를 볼 때보다 오히려 잘 보이는 부분이 있다. 타인의 시선을 통해 어려웠던 시기의 ‘우리’와 ‘이웃’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공헌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한중 양국 학계의 안중근에 대한 연구는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관련 시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중국의 경우, 안중근 관련 시가를 전문적으로 논의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관련 연구로 필자의 이전 논문 외에도 양귀숙外 「梁啓超 詩文에 나타난 朝鮮問題 인식」(2003), 이등연·양귀숙 「중국 근대 시기 詩歌에 나타난 朝鮮 문제 인식」(2004), 김진욱 「安重根 義擧를 통한 中國 知識人의 朝鮮 認識 研究」(2005), 蔣曉君 「중국 근대문학 속의 安重根 형상 연구」(2009), 문대일 「중국 현대 韓人題材詩歌에 나타난 ‘抗日’과 ‘獨立’ 양상 研究」(2017), 뉴린제·탕전 「동아시아 현대문학 속의 한국 항일영웅 서사」(2017) 등이 있다. 아직까지는 일부 시가에 대한 부분적인 논의이거나 다양한 연구 주제를 다루는 가운데 시가를 부수적으로 살피는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본고와 후속 연구들<sup>3)</sup>을 통해 안중근 제재 중국 시가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요 내용과 형상화의 문제 등을 분석하여 의미와 가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3) 본고는 (1)안중근을 제재로 삼은 중국 시가 현황을 고찰하고 그 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중근에 대한 애도와 찬양에 대해 논의한다. 두 편의 후속 연구는 “(2)安重根 義士를 題材로 한 중국 詩歌 연구II - 특별한 타자 및 제삼자적 인식과 감정 표출을 중심으로 -”와 “(3)安重根 義士를 題材로 한 중국 詩歌 연구III - 안중근 인물 형상화를 중심으로 -”이다.

## 2. 중국의 ‘안중근’ 제재 시가 개관

北京大學 歷史學科 교수 宋成有의 분석에 의하면, 1909년 안중근 의거 이후부터 1945년 일제가 패망으로 한중 양국에서 쫓겨날 무렵까지, 중국에서 3차례의 ‘안중근 붐’이 있었다. 요약하자면 ‘①의거 및 순국시기’, ‘②오사운동시기’, ‘③항일 전쟁시기’ 세 시기에 안중근에 대한 논의가 특히 활발했고, 여러 장르의 문예작품 및 언론 기사문 등이 다수 발표되었다.<sup>4)</sup> 역시 중국 근대사 연구자로서 河南理工大學 도서관 관장을 맡은 바 있는 蘇全有도 같은 기간 『申報』에 보이는 ‘安重根’ 언급 총 257회를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 위 宋成有의 통계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냈다.<sup>5)</sup> 역사적 인물은 외국인일지라도 자국의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소환되어 평가되고 문예 및 글쓰기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①시기에는 무엇보다 많은 중국 언론 매체에서 안중근 의거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고, 평론이나 논설도 대량으로 발표했다. 안중근과 그 의거에 대해서, 당시 중국도 사건 발생지로서 관련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제국주의의 침탈을 겪는 입장에서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의거 직후부터 각 신문·잡지 매체별로 다양한 기사와 문예작품들을 쏟아냈다. 주요 신문이던 『申報』·『民吁日報』·『時報』·『大公報』·『盛京時報』·『神州日報』 등은 물론이고 많은 소규모 매체에서도 상세히 보도하고 관련 작품들도 실었다. 마침 辛亥革命(1911년) 전후 중국에도 애국혁명·살신성인의 기개를 적극 선양할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崔峰龍·許盈에 의하면 이 무렵 貢少芹이 『亡國恨傳奇』라는 극본을 연재했고,<sup>6)</sup> 上海 극단인 進化團이 上海·南京·武漢 등지에서 연극 『安重根刺殺伊藤博文』(일명 『東亞風雲』)을 공연하여 혁명의식을 고취하기도 했다.<sup>7)</sup>

다음으로 ②시기 즉 한국에서 삼일운동이 있었고 이어서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있었던 시기에는 중국의 청년 학생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일제의 침탈에

4) 宋成有, 「中國人士所見安重根義舉的視覺和反應」, 『大連近代史研究』 7期, 2010: 126-149.

5) 蘇全有, 「安重根在中國的百年記憶評析」, 『河南理工大學學報』 18卷3期, 2017: 86-87.

6) 1910년 『大路半月刊』에 연재.

7) 崔峰龍·許盈, 「近三十年來中國史學界對安重根研究綜述」, 『大連大學學報』 36卷4期, 2005: 26.

대한 저항의식이 확산되며 그 영향 하에 다시금 '安重根'을 제재로 한 많은 문예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특히 여러 지역의 학교에서 연극 『安重根』(일명 『亡國恨』)을 공연했다. 天津에서 학창시절 연극 활동을 하던 周恩來·鄧穎超 부부도 이 극의 공연을 통해 민중들에게 항일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했다.<sup>8)</sup>

주지하듯이 중국은 1894년부터 이듬해까지의 甲午 淸日戰爭에서 일본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고, 이후 스스로 '國恥'라 일컫는 1931년 만주사변을 거쳐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과 다시 전면전을 벌였다. 항일전쟁시기라고 불리는 이 1937-1945의 ③시기에 중국의 언론 및 문화·문예계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항일·항전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제 2차 국공합작의 기치 하에 사회 참여 성향이 강한 戲劇界를 중심으로 한동안 좌우의 문단이 함께 항일문학운동을 펼쳤다. 예를 들어 田漢 주도로 武漢이나 長沙 등지에서 『安重根刺殺伊藤博文』을 공연했다. '安重根'이 일제의 침략에 맞서 중국 민중들에게 민족의식과 투쟁정신을 북돋우는 데 매우 적합한 제재였기 때문이었다.

詩歌는 노래다. 노래는 위로이자 투쟁이다. 희극 못지않게 활용되었다. 위와 같은 흐름 속에서 '安重根'을 제재로 한 중국인들의 시가 작품들이 의거 직후부터 창작되기 시작하여 신문·잡지에 실리기도 하고 전기문이나 개인 시문집에 수록되기도 했다. 중복되기도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시가 작품들을 최대한 확인하고 그 원문을 수집하기 위해, 첫째 『晚淸期刊全文數據庫(1833-1911)』와 『民國時期期刊全文數據庫(1911-1949)』 데이터베이스 등을 세밀히 조사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시가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아울러 당시 지면의 영인본을 확보했다. 앞서 언급한 蘇全有가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부 중국 근현대 신문잡지에 실린 것으로 파악한 총 14수<sup>9)</sup>보다 훨씬 많은 40여 수의 작품이다.

둘째, 여러 안중근 전기문 가운데에도 안중근 제재 시가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 독립운동가이자 문인·사학자인 朴殷植의 漢

8) 宋成有, 위의 논문: 129.

9) 蘇全有, 위의 논문: 88.

文本 『安重根傳』(1912), 초기에 중국인에 의해 저술된 鄭沅의 『安重根』(1917), 鄭洸의 『安重根傳』(1918) 등 전기문에서 다수 작품들을 찾을 수 있다.

셋째, 근래의 안중근 연구 저술 및 중국 현대문학 자료 총서인 金字鍾·崔書勉의 『安重根-論文·傳記資料』(1994), 華文貴의 『安重根研究』(2009), 金柄珉·李存光의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2014), 李存光·金幸旭의 『中國現代文學與韓國文獻補編』(2020) 등에도 일부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 두 자료가 특히 중요하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미진하나마 대체로 망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급한 여러 경로를 통해 '安重根' 제재 시가들을 최대한 수집한 결과, 작품 실체를 확인한 것들은 현재까지 50여 작품이다. 그 중 당시 재중 한국인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나 중복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논의할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인들의 작품은 대략 40여 작품이다. 대체적인 발표 시기<sup>10)</sup>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고는 이 작품들을 텍스트로 삼는다.

〈표〉 안중근 제재 시가 목록

	제목	작자	출처 및 발표 시기
1	朝鮮兒歌-哀安重根刺伊藤博文也	陳嘉會	船山學報 1932년1기(1909년 작) <sup>11)</sup>
2	秋風斷藤曲	梁啓超	飲冰室文集 1910년 2·3월 경
3	朝鮮哀詞五律二十四首	梁啓超	國風報 1910년 9월 21기
4	生查子·吊安重根	胡月	滄浪雜誌 1910년 3기
5	安重根	林棟	梅湖吟稿 1910년에 수록
6	爲韓國安重根感作	작자미상	民心 1911년 2권
7	感韓人安重根事次道非見懷詩均	高旭	南社 1912년 1기
8	安重根詩	黃季剛	文藝俱樂部 1912년 1권 2기
9	제목 미상	孫文	만고의사안중근전(1917)에 수록
10	安重根	袁世凱	여러 전기문에 수록
11	제목미상	蔡元培	여러 전기문에 수록 <sup>12)</sup>
12	哀朝鮮義士安重根	顧實	江蘇第三師範學校校友會雜誌 1912년 1기
13	讀安重根傳	周曾錦	박은식 安重根傳(1912년)에 수록
14	東韓烈士歌	林樹聲	위 전기문에 수록

10) 신문·잡지에 발표된 사실을 확인한 작품은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전기문에 수록된 작품은 전기문이 간행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두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작가의 활동 시기나 출전의 간행 시기 등을 고려했다. 한편 중국인의 시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당시 재중 한국인인 金澤榮이 지은 「聞哈爾濱消息」 등은 제외했다. 다만 위 작품들 중에서 한국인 작가들이 漢字 필명을 사용하여 지은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15	聞哈爾濱炮擊	青邱恨人	위 전기문에 수록
16	悼旅順受刑	青邱恨人	위 전기문에 수록
17	謹題安重根先生傳	羅洽霖	위 전기문에 수록
18	謹題安先生傳	張震青	위 전기문에 수록
19	吊安重根先生	陳駕春	위 전기문에 수록
20	安重根傳感賦	查士瑞	위 전기문에 수록
21	讀安重根先生傳	王燾	위 전기문에 수록
22	悼義俠安夫子	雲人	위 전기문에 수록
23	金縷曲·題安重根傳	程善之	國民月刊 1913년 1권 1기 <sup>13)</sup>
24	敬題安重根先生傳	汪洋	國民月刊 1913년 1권 1기 <sup>14)</sup>
25	生查子·題安重根小傳	漢章	雲南 1913년 1기
26	哀伊藤	沈汝瑾	여러 전기문에 수록 <sup>15)</sup>
27	金縷曲·題安重根傳	(陳)翼郎	生活日報 1913년 11월
28	安重根	(陳)翼郎	崇德公報 1915년 1기
29	健兒行 - 紀朝鮮志士安重根事	長沙徐雅衡	大夏叢刊 1915년 1권 1기
30	安重根	葉舟	長沙鄭沅의 安重根(1917)에 수록
31	贈朝鮮刺客	汪笑儂	寸心 1917년 제5기
32	安重根	朱榮泉	約翰聲 1918년 29권 8기
33	題安重根傳·調寄金縷曲	(陳)翼郎	新世界 1918년 4월
34	題程白葭所撰韓義士安重根傳四十韻	晉卿	時事新報 1918년 11월
35	悼大韓義士安重根示汕廬	林景澍	震壇 1921년 14기
36	挽韓義士安重根先生	周霽光	震壇 1921년 14기
37	秋風斷藤曲	胡蘊山	五九月刊 1927년 2월
38	讀朝鮮烈士安重根傳	張磊	礦大學生 1931년 1기
39	亡國哀曲 - 弔朝鮮	侯曜	民聲週報 第12期 1931년 3월
40	詠安重根	敖溪	社會日報 1931년 10월
41	傷義士荊軻-獻給隣國的一位英雄	蘇鳳	民國日報 1932년 1월
42	悼英魂	商生才	縣村自治 1932년 2권 7기
43	弔安重根	王敖溪	社會月報 1935년 1권 9기
44	弔安重根詩	顧祥增	錫報 1936년 12월
45	朝鮮人	草菜	文藝月刊 第1卷12期 1938년 6월
46	我懷念着妳的祖國	萬衆	大路半月刊 1940년
47	弔安重根	智蔚	吧達維亞華僑公會月刊 1941년 2권1기

- 11) 1932년 壬申年 『船山學報』 제1책에 실려 있지만, 제목 아래 '己酉作' 즉 1909년 작품임을 밝히고 있다.
- 12) 鄭洸의 『安重根傳』(1918)과 卑牧의 「公教愛國烈士安重根」, 『中華公教青年會刊』(1929년 제 1권 2기)에 수록. 蔡元培(1869-1940)의 활동시기를 고려하여 이 시는 의거 및 순국 시기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3) 박은식의 『安重根傳』(1912)에도 수록.
- 14) 동상.
- 15) 작자 沈汝瑾은 1857년부터 1917년까지 살았던 문인이므로, 이 작품은 의거 및 순국 시기

물론 누락된 것들도 있을 것이며, 위 작품들 중에도 작자·제목 및 발표 시기 등에서 불확실한 점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계속 보완해나가고자 한다.

위에서 보듯이, 대체로 의거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소회를 시가로 읊어 신문·잡지에 실은 시가들과 전기문에 부치거나 전기를 읽은 후의 詩情을 펼친 題詩들이다. 또한 작품들 중에는 제목이나 시구 가운데 ‘安重根’이라는 낱말이 들어 있어 쉽게 파악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다각적으로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량치차오<sup>16)</sup>의 「秋風斷藤曲」은 전체 7언 76구의 매우 긴 편폭을 통해 내용상으로 안중근을 예찬하고 자신의 복잡한 소회를 피력했지만, 독특하게도 시구 중에서는 한 번도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역시 량치차오의 작품인 「朝鮮哀詞五律二十四首」의 경우도 제목만 보아서는 ‘安重根’과 특별히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조선의 망국을 폭넓게 다루는 가운데 제 18수에서 전적으로 ‘안중근’을 노래했다. 안중근을 기리는 것과 더불어 이를 통해 조선의 망국에 대한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표출하고 중국을 위한 계몽을 추구했다.

위 작품들 리스트에서 보듯이, ‘安重根’ 제재 시가는 1909년 의거 이후부터 1920년 무렵까지 꾸준히 창작된 점이 우선 두드러진다. 宋成有가 문예 및 기사문의 전반적 흐름에 대해 분석한 것과 비교해보면, 시가의 경우는 ①의거 및 순국시기에 가장 많이 나왔고, ②오사운동시기까지 명맥을 이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의거와 순국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음은 물론, 중국에 신해혁명(1911)·오사운동(1919) 등 굵직한 반제·혁명·애국 운동의 분위기가 충만했던 점과 관련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1920년대를 거치며 자연히 빈도가 적어지긴 했지만, 1931년 만주사변 시기부터 ③항일전쟁시기까지 중국인들에게 항일애국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위기의식이 체감되면서 다시 유용한 제재가 되었다. 1940년대 초반 이후로는 작품이 거의 나오지 않다가, 근래 한중간에 우호 분위기가 조성되어 안중근 및 하얼빈역이 재조명되면서 명맥을 잇는 작품이 나왔다.<sup>17)</sup>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작품의 제목은 「哀伊藤」이지만 ‘安重根’도 중요한 제재이다.  
16) 梁啓超(1873-1929), 廣東新會人, 字卓如, 號任公, 筆名飲水室主人 등. 계몽주의 정치가·사상가·언론인·문학가. 康有爲와 함께 변법유신을 주도했다.



### 3. 안중근에 대한 애도와 찬양 내용 분석

앞서 제기했듯이 '安重根' 제재 중국 시가들에서는 안중근과 그 의거는 물론 '한국'<sup>18)</sup>에 대한 중국인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인식과 감정이 드러난다.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하나는 (1) 안중근의 의거를 찬양하고 그 순국을 애도하는 것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침략당하며 갈수록 위기로 내몰리는 중국인들이 의거를 접한 후 일차적으로 가질 수 있는 소회이며, 안중근 의거에 대해 일종의 주체적 감정을 느끼는 한국인들의 정서에 상당히 부합하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2) 한국을 속국으로 인식하는 특별한 타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냉정한 제삼자적 입장에서 미묘한 인식과 정감이 드러나는 내용이다. 한국인들이 공유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이 포함된다. 언급했듯이 (2)의 내용은 후속 논문에서 자세히 논의하고자 하며, ①한국에 대한 우월의식 및 비판, ②한국 종주권 상실에 대한 아쉬움, ③유신틀 모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찬양 및 애도, ④중국을 위한 계몽과 교훈 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안중근 애도와 찬양에 그치지 않았다. 본고는 이제 (1) 안중근 애도·찬양 내용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 1) 애국심·독립심 고취 모범으로 애도·찬양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의거를 일으켰고, 1910년 3월 26일 30세의 나이에 순국했다. 곧이어 8월 29일 한국이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었고, 1911년 10월 10일 중국에 신해혁명이 일어났다. 여운이 남아있던 1912년 무렵까지 특히 많은 안중근 제재 시가들이 발표되었는데, 내용상으로는 안중근에 대한 애도와 찬양이

17) 예를 들어 2010년 中流(본명 鄭存)라는 원로 시인이 안중근 의거 백주년을 맞아 장편시를 짓고 이를 『安重根之歌』라는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18) 당시 중국인들은 시가나 글쓰기에서 한국과 조선이라는 두 낱말을 대체로 특별한 구별 없이 사용했다. 예를 들어 량치차오는 『日本併吞朝鮮記』의 記例에서, “본문에서 조선으로 칭하기도 하고 한국으로 칭하기도 하는데, 문장의 편의에 따른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飲冰室專集』之二十一) 본고의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우선 이 격변기 중국 정치 지도자들이던 쑨원·위안스카이·량치차오의 시가를 들 수 있다.

국가 지도자들은 애국심·독립심·희생정신과 같은 국민성 덕목들이나 국가사회를 위한 리더십의 표상으로서 안중근의 이미지를 선양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위안스카이<sup>19)</sup>와 쑨원<sup>20)</sup>이 남긴 것으로 전하는 시가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평생 도모하신 일 지금 끝내셨나니,  
死地에서 생을 도모함은 장부가 아니리.  
몸은 삼한에 있지만 이름은 만국에 떨쳤으니,  
살아서는 백세도 누리지 못했지만 죽어서 천년을 사노라.<sup>21)</sup>

공적은 삼한을 덮고 이름은 만국에 떨쳤으니,  
살아서는 백세도 누리지 못했지만 죽어서 천년을 사노라.  
나라가 허약하여 죄인이 되고 나라가 강성하여 재상이 되었거늘,  
처지가 바뀌었다면 또한 이토가 기다렸으리라.<sup>22)</sup>

두 인용 중 위는 위안스카이가 지은 시 「安重根」이다. 권력욕으로 친일 외교를 채택하기도 한 위안스카이지만 안중근을 통해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강조했다. 일제에 대한 분노나 저항, 같은 피해자로서 한국에 대한 연대의식 등의 정서는 없다.

한편 짚고 넘어가야 할 점으로, 이 시는 출처 및 발표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한중 양국의 여러 연구 및 저술에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2차 자료 간에 서로를 출처로 제시함으로써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더구나 이 시의 제 4구와 아래 孫文 시의 제 2구가 완전히 일치하는 점도 진위여부에 대한 의심을 가중시킨다. 두 작품 모두 타인의 가탁을 배제할 수 없다. 아무튼 이 작품에는 특별한 형상화나

19) 袁世凱(1859-1916), 字 慰廷, 號 容庵, 河南 項城人. 李鴻章의 막료 출신으로, 1882년 壬午軍亂 당시 淸軍을 이끌고 조선에 파견되어 특히 1884년 甲申政變을 계기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후 淸朝에 중용되고 北洋政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辛亥革命 후 中華民國 초대 總統에 올랐다.

20) 孫文(1866-1925), 化名 中山樵, 廣東 香山人. 中華民國의 창시자, 정치인·혁명가로서 辛亥革命을 주도하고 國民黨을 이끌며 '三民主義'를 주창했다.

21) “平生營事只今畢, 死地圖生非丈夫. 身在三韓名萬國, 生無百世死千秋.”

22) “功蓋三韓名萬國, 生無百歲死千秋. 弱國罪人強國相, 縱然易地亦藤侯.”

전고의 사용은 없지만, 평이한 표현으로 안중근을 진지하게 예찬했다.

그 아래 인용한 제목미상의 숲원 시<sup>23)</sup>도 비슷한 경향의 작품이다. 다만 마지막 구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첫째는 본고의 해석으로, 위와 같이 藤을 '이토', 候를 '기다리다'·'묻다'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처지가 바뀌었다면 또한 이토도 죄인이 되었으리." 또는 "처지를 바꾸어 보면 그 역시 이토이리라."라고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저술에서 채택한 해석이지만 비약이 심하다. 셋째, 藤侯가 '藤侯'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록 땅은 바뀌었지만 또한 등후가 먼저로다."로 해석할 수 있다. 魯나라 隱公 11년에 등후와 薛侯가 노나라에 조회하러 왔다가, 누가 먼저 예를 행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등후가 주나라와 같은 姬姓이라는 이유로 먼저 예를 행했다고 한다. 등후는 안중근, 설후는 이토를 비유하며, 중국 땅에서는 이토 보다 안중근을 더 높이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전해지는 원문의 상태가 불명확하여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초기 중국 지도자의 인식을 대표하는 작품은 량치차오의 장편시 「秋風斷藤曲」을 꼽을 수 있다. 량치차오를 전문적이거나 저명한 시인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는 중국시의 근대적 변화를 추구한 '詩界革命'의 창도자로서 『飲冰室詩話』 연재를 통해 체계적 시론을 발표하고 개혁 노력을 했다. 이로써 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고, 창작 면에서도 詞를 포함한 약 5백여 수의 시가를 전한다. 그중 이 작품은 특히 자신의 계몽주의적 시론에 잘 부합한다. 정치인·언론인이기도 한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 무엇보다 이후 안중근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한다.

량치차오는 세기의 博學家답게 역대 중국의 다양한 인물 형상과 전고를 대량으로 동원하며 안중근 의거를 대하는 자신의 복잡 미묘한 소회를 펼쳐보였다. 그렇지만 이 작품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인들이 표현해낸 여러 인식과 감정 중에서는 어쨌든 안중근에 대한 애도와 찬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국 땅

23) 이 시는 안중근의 국문 약전인 『만고의사 안중근전』에 실려 있다. 이 약전은 1917년 12월 블라디보스톡 新韓村 韓人新報社에서 石版으로 간행된 『愛國魂』에 수록되어 있다. (약전은 윤병석 역편, 『安重根傳記全集』에 수록)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초기 작품임이 분명하다. 다만 위안스카이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에 개선장군처럼 등장한 일제의 수뇌를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응징한 일은 중국인들에게도 일종의 귀감으로 비춰지고 나아가 상당한 감동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sup>24)</sup>

량치차오는 「秋風斷藤曲」 도입 부분에서, 원래 변세 경치와 병사의 정서를 읊은 樂府詩 鼓角橫吹曲 「關山月」<sup>25)</sup>을 상기시키고, “역로의 푸른 등불은 흰 눈을 붉게 물들여 비춘다.”<sup>26)</sup>라며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늦가을 밤 하얼빈 역의 事後 정경을 비장하게 이끌어냈다. 이어서 그 잔상이 생생히 남은 가운데 2행부터 잇달아 수많은 고대 중국의 영웅적 인물들로써 비유하며 안중근을 노래했다. 춘추시대 쯤나라 장수 先軫과 삼국시대 蜀漢의 충신 楊儀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 要離에 이르기까지 유명·무명의 영웅·의협·충신들을 수없이 등장시켜 안중근을 형상화했다. 이를 통해 안중근이 忠·義·勇 및 희생정신 등 이상적인 국민성 덕목들을 가진 것으로 찬양하고 그 죽음을 애도함으로써 중국인들이 본받기를 기대했다. 량치차오는 또 다른 조선 관련 시가 「朝鮮哀詞五律二十四首」의 제 18수에서도 안중근을 氣節이 쇠하지 않은 ‘조선의 남아’로 예찬했다.<sup>27)</sup>

위와 같이 이 시기 중국 지도자들의 시가는 안중근에 대해, 애국심·독립심·희생정신 등 중국인들에게 필요한 품성 및 리더십을 갖추고 실천한 모범적 대상으로 높이 평가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의거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장렬히 순국함을 진지하게 찬양·애도한 경향이 크다. 한국인과 같은 피해자 의식이나 동조적 입장에서 애도·찬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중국도 19세기 들어서며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으며 반식민지 상태로 내몰리고 있었지만, 한국이 이미 식민지가 된 것과는 달리 중국은 아직 일제의 본격적인 침탈을 겪기 전이었기 때문에 분노의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동조의 감정이

24) 량치차오 정론문 중의 언급을 보더라도 “조선사람 가운데 안중근 같은 이가 한둘만 더 있어도 일률적으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朝鮮滅亡之原因」, 『飲冰室專集』之二十)라고도 했고, “일본인까지 경의를 표할 정도의 인물이었다.”(「日本併吞朝鮮記」, 『飲冰室專集』之二十一)라고도 했다.

25) 「關山月」은 李白이 악부 제목을 빌려 지은 五言古詩로도 유명하다.

26) “秋笳吹落關山月, 驛路青燈照紅雪.”

27) “삼한의 수많은 인물 중에, 내게는 두 남아만 보인다.(三韓衆十兆, 吾見兩男兒.)” 안중근과 더불어 당시 國恥에 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한 충청도 錦山 군수 洪範植을 함께 찬양했다.

입을 불러일으킬 상황은 아니었다. 때문에 량치차오의 경우, 「秋風斷藤曲」에서 안중근을 애도하고 찬양하면서도 동시에 유신의 롤 모델이던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도 안타까워했다. 총결 대목에서 나란히 무덤을 만들겠다는 표현으로 안중근과 이토를 함께 현자로 받들고, 자신의 인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학습해왔지만 안중근도 존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안중근에 대해 ‘忠’의 덕목을 강조하며 찬양했지만, 이는 중립의 균형감 내에서였다.

천추의 은원을 누가 능히 가릴 수 있으랴,  
 두 현자 각기 태산만큼 중하도다.  
 인생길에 晁嬰<sup>28)</sup>의 편달을 따르고 받들었지만,  
 이웃에 묘혈을 만들어 杓<sup>29)</sup>의 무덤으로 삼고자 한다.<sup>30)</sup>

량치차오 등 지도자들이 바랐던 것은 무엇보다 수난의 시기에 중국을 부국강병으로 이끌어가는 굳센 리더십과 이상적 국민성이 자국 국민들에게 널리 내면화되는 것이었다. 때마침 안중근은 중요한 모범이 되었다. 동시에 이들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에 체류하거나 친일 정책노선을 취하면서 일본의 경험을 다양하게 참고하고 직간접적인 자극을 받았다. 일본의 개혁뿐만 아니라 무사도 같은 정신문화도 모범으로 삼고자 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열배나 큰 중국에게 승리하고 조선을 삼킬 수 있었던 힘은 무사도정신 즉 상무정신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내면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부러워했다.<sup>31)</sup> 기본적으로 안중근도 이토도 똑같이 중국에 필요한 정신문화를 제고시키는 표상으로 활용되었다.

서명인사들 외에 인적사항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일반 중국 지식인들도 시가로써 안중근을 기렸다. 인물 형상이나 전고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위 작품들과 비슷

28) 안영(?-B.C.500)은 春秋時代 齊나라의 大夫로, 景公의 재상이 되어 근검절약과 무실역행으로 널리 알려졌다. 여기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비유했다.

29) 요리는 春秋 말기 吳나라의 협사로, 여기서는 안중근을 비유했다. 『呂氏春秋』의 「忠廉」편 등에 의하면, 요리는 吳王 闔閭를 위해 자기 한 쪽 팔과 처자식까지 희생해가며 政敵을 살해한 뒤 마지막엔 자결함으로써 忠을 다한 인물이다.

30) “千秋恩怨誰能訟, 兩賢各有泰山重. 塵路思承晏子鞭, 芳鄰擬穴要離冢.”

31) 량치차오, 「論尙武」, 『新民說』, 『飲冰室專集』之四.

한 경향 가운데 자신의 소회를 직설적으로 풀어낸 작품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 작자 미상의 「爲韓國安重根感作」<sup>32)</sup>이라는 작품을 살펴본다.

십년을 용렬하게 세상 풍진 겪고 보니,  
나는 당당한 한 국민으로서 부끄럽다네.  
동쪽으로 안중근·우덕순<sup>33)</sup> 무리 바라보니,  
이젠 감히 한인을 비웃지 못하겠구나.

其二  
격양되고 강개하여 언사를 토로하고,  
심리에 입하며 고상하여 시류를 좇지 않는 말 다 펼쳤네.  
절호의 기회에 목숨을 걸었으니,  
중국과 조선에 이런 건아가 없도다.<sup>34)</sup>

안중근 의거에 대해, 우덕순 등과 함께한 준비 작업과 진행 과정 그리고 재판 상황 등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후 자신의 감정을 詩作으로 표출했다. 한중 양국의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건아’·‘남아’로 총결했다. ①의거 및 순국 시기의 ‘안중근 봄’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한다.

한편 시 못지않게 중국인들이 애호하는 詞 장르에서도 안중근을 기리는 많은 작품들이 나왔다. 그중 「生査子·弔安重根」<sup>35)</sup>이라는 작품이 평이하면서도 안중근에 대한 애도와 찬양의 취지를 잘 표현했다.

훌륭하다 안중근, 애국심 어찌나 뜨거운지.  
한국이 망함을 차마 보지 못하여, 유관<sup>36)</sup>의 눈 위에서 노숙하였다.  
하얼빈에 피를 뿌리고, 죽었노라 참된 영웅호걸이어.

32) 『民心』 1911년 2권.

33) 禹德淳(1876-1950), 일명 連俊. 안중근 의거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공범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6.25전쟁 당시 서울에서 북한군에게 처형당했다.

34) “十年碌之走風塵，我愧堂堂一國民。東望重根連俊輩，而今不敢笑韓人。(其二) 激昂慷慨吐供詞，發盡危言對讎時。絕好頭顱拚一賭，中朝無此健男兒。”

35) 生査子는 詞牌名으로, 唐나라 教坊의 곡명이었으며 楚雲深 또는 梅和柳라고도 한다. 작자는 胡月이라는 필명으로만 되어 있어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36) 유관은 山海關 즉 북방 변세를 가리킨다.

압살은 동방을 놀라게 했으니, 천추에 그 이름 불멸하리라.<sup>37)</sup>

위는 총 4수 가운데 첫 수로서, 특별히 인물 형상화나 전고를 활용하지 않고 直敘에 가까운 표현으로 안중근을 예찬했다. 그 다음에 제 2수부터 중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형상화와 전고의 활용을 통해 안중근의 결연한 의지와 성취를 찬양했다. 역시 안중근을 애국심과 희생정신의 모범으로서 객관적으로 기리는 정서가 두드러진다.

清末의 일반 관리였던 林樹聲<sup>38)</sup>이 지은 「東韓烈士歌」의 경우도 안중근과 의거 및 당시 정세에 관해 상당한 소견을 지닌 가운데 비슷한 경향으로 다음과 같이 읊었다.

.....

영웅은 천고에 특별한 혼백을 키워냈으니,  
지사는 성패를 가리지 않고 삶과 죽음을 바꿨네.  
안군은 타고난 지혜가 매우 탁월했고,  
뜨거운 피가 끓어올라 바다 물도 데웠네.

.....

안중근은 붉은 옷 입고 늘 두각을 나타냈거늘,  
봉화가 관산에 오르니 온 눈에 놀라움이라.  
공적을 제거하지 않으면 仁義를 해치는 것이니,  
홀뿌려진 피로써 맹세하며 평화를 이루고자 했다네.  
동쪽 숲 속 여우와 쥐새끼들은 논할 필요도 없지만,  
늑약으로 횡포 부려 국내외가 피곤하구나.  
열세 가지 죄상을 포탄 한 방에 다스리니,  
세상의 꿈꿈이 같던 일들 모두 답답함이 풀렸네.

.....

해와 별의 공리가 천지에 빛나니,  
민국의 여론 평에서 뇌리에 견고하게 각인되었지.  
피를 토하듯 법정에서 투쟁하며 의사는 분노했으나,  
재판에선 죄상을 조작하여 죄에 빠뜨려 검은 속내 드러냈지.

37) “美哉安重根, 愛國心何熱. 不忍見韓亡, 露宿榆關雪. 血濺哈爾濱, 死矣眞英傑. 暗殺震東方, 千秋名不滅.”

38) 清朝 관리, 光緒24년 進士.

태백의 바른 원기 참으로 왕성하여,  
세상에 견줄 바 없는 특출한 이들 길러내니 인물이 몇이었던가.  
가슴에 복두칠성 품어 일곱 개 별만큼 고고하니,  
이로움으로 피고 위협으로 속박해도 끝내 굽히지 않았다네.<sup>39)</sup>

별다른 인물 형상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영웅·지사·의사로서 안중근의 기백을 극찬하고 그 순국을 애도한 부분들을 인용했다. 안중근의 변론 주장이나 국제 여론까지 반영하며 그 불굴의 義氣를 찬양했다. 더불어 안중근이 당당하게 일제의 무도함에 대해 조목조목 논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제가 재판에서 사형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당시 각종 매체가 안중근에 관한 다양한 기사와 사설 등을 다수 발표했고, 또 한중 양국의 여러 문인들이 전기를 발표함으로써, 관련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묘사라고 생각한다. 특히 다른 작품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점으로, 무도한 국제 정세 가운데 동양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갈구한 안중근의 고귀한 사상을 인식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 작품도 1912년에 나온 박은식 저술 전기문 『安重根』에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이러한 漢文本의 안중근 전기문들을 읽고 감동하여 지은 題詩가 많은 편이다. 대체로 앞서의 작품들과 비슷한 정서를 표현했다. 1913년에 발표된 「敬題安重根先生傳」를 예로 들어 살펴본다.

총탄 한 발에 여한이 없고,  
그대는 가을에 대단한 명성 누렸네.  
스스로를 삼가하며 고국을 사랑하여,  
웃음을 머금고 이생을 보냈지.  
뛰어난 재기 늘 생동하는 듯하여,  
강물 흐르듯 밤에 그대 목소리 들린다.  
송빈<sup>40)</sup>에서 멀리 돌아보며,

39) “……英雄千古孕奇魄,志莫敗成生死易.安君元識卓更超,熱血蒸騰沸海潮.……紅衣頭角總嵒嶸,烽火關山滿日驚.公敵不除仁義賊,血花誓以鑄和平.東林狐鼠無須論,勒約梟張中外困.十三罪狀一砲彈,世界葫蘆盡解悶.……日星公理炳乾坤,萬國輿評印腦堅.嘔血庭爭義士氣,裁判周內破盆玄.白山正氣誠葱鬱,曠世毓奇幾人物.胸羅斗宿七星高,利銛威箝永不屈.”

40) 하얼빈에 속한 지명.



영혼을 위로하노라니 비장한 정감 주체할 수 없어라.<sup>41)</sup>

汪洋<sup>42)</sup>이라는 공무원·교사 출신의 작자가 안중근의 애국적 의거를 찬양하고 영혼을 위로하며 비장미 넘치게 노래했다. 이 작품을 포함하여 위의 작품들은 역시 높고 진지한 찬양과 깊고 안타까운 애도를 하고 있지만 분노·절규의 주체적 정서까지는 느껴지지 않는다. 대체로 일종의 위인전을 읽고 대상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반성하고 존경하거나 대상을 추모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2) 항일의식 고조 분위기 하에서 동지적 애도·찬양

위와 같은 작품들이 발표된 이른바 ①의거 및 순국시기의 안중근 붐이 수그러들고, 한동안 안중근 관련 시가들이 뜸하다가 ②오사운동시기에 이르러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과 파리 강화회의를 거치며 중국의 허약한 처지가 더욱 명백해지고 더불어 일본의 교활한 침탈도 피부로 체감하게 됨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맞춰 중국인들이 안중근을 다시 소환했다.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재평가하고 사뭇 새로운 인식과 정감으로써 애도·찬양했다. 오사 분위기가 이어지던 1920년대 초 나온 두 작품을 살펴본다.

장하다 안선생, 뛰어난 절개로 나라에 보답했네.  
 군세계 그 마음 다잡아, 동무도 맺지 아니했지.  
 홀로 그 원수를 뒤쫓아, 일거에 원한을 풀었구나.  
 의기가 격앙되며 그 몸을 바쳤고, 늠름하고도 용맹스러웠지.  
 아! 우리 후손들이여, 마음 속 뜨거운 열을 어찌 풀까.  
 모두가 뜻을 모아 굳건히 성을 쌓고,<sup>43)</sup> 황룡혈<sup>44)</sup>에 이르길 기약하라.  
 선생은 구천에서, 원수의 피를 통음하리니.<sup>45)</sup>

41) “一彈無餘恨，子秋享令名。側身膽故國，含笑送平生。英氣常如在，江流夜有聲。松濱試迴顧，憑弔不勝情。”

42) 字는 子實. 安徽省 楊州 사람. 국민당 공무원, 교사, 언론인.

43) ‘成城’은 「周語下」, 『國語』의 “衆志成城, 衆口鑠金.” 구절에 보인다.

44) “金將軍韓常欲以五萬衆內附. 飛大喜, 語其下曰, ‘直抵黃龍府, 與諸君痛飲爾!’”(『岳飛傳』, 『宋史』)에 보이는 ‘痛飲黃龍’ 즉 황룡부에서 승리의 축하주를 통음한다는 구절을 활용했다.

우렁차고 용맹스럽다 범상치 않은 남자,  
 나라 위해 원수 죽였나니 또한 장하도다.  
 독립을 위한 감화의 공업<sup>46)</sup> 뚜렷하지만,  
 인을 이루고 의를 취함은 고금에 슬픈 일.  
 나라 광복에 어찌 못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라?  
 해와 달이 다시 빛남은 준재에게 의지하는 것.  
 고국의 궁정은 여전하니,  
 충혼은 멀리 배회하지 말지니.<sup>47)</sup>

둘 중 위의 시가는 오사운동에 참여한 사적 정도만 알려져 있는 林景澍<sup>48)</sup>의 「悼大韓義士安重根示汕廬」<sup>49)</sup>이고, 아래 시가는 周霽光<sup>50)</sup>이라는 인물의 「輓韓義士安重根先生」<sup>51)</sup>이다. 조국 회복을 위해 원수를 처단한 안중근의 의기와 용맹에 대해, 局外者的 평가나 존경에 머물지 않고 동지적 또는 주체적 입장에서 애도하고 찬양했다. 나아가 후손들이 안중근의 숭고한 기풍에 감화되어 결국 광복을 이룰 것이라고 미래를 기약함으로써 그 정감의 진정성이 배가되었다. “높은 기풍에 감화되어, 약한 자도 분기하게 됨(孺立)”을 갈망하며 자국의 위기에 긍정적 암시를 제시하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앞 절에서 논의한 시기의 경우, 한국은 이미 ‘國恥’의 상황에서 일제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 고조되었지만, 중국은 아직 일제의 압박에 절박한 입장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이 참전을 선포하면서 중국 침탈의 야욕을 드러내고, 패전국 독일이 산둥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이권을 승계하는 야욕을 실천에 옮기면서 결국 1919년 오사운동을 불러일으켰다.

45) “壯哉安先生，報國有奇節。耿耿秉其心，而不倚侶結。孑然尾其仇，一舉而昭雪。慷慨損其軀，凜凜復烈烈。嗟我後生輩，曷釋肝腸熱。衆志以成城，期抵黃龍穴。先生九原下，痛飲仇人血。”

46) ‘頑廉’은 『孟子』에 보이는 표현. ‘頑廉孺立’ 즉 탐욕스런 자도 청렴하게 되고 나약한 자도 분기하게 된다는 의미로, 남의 높은 기풍에 감화되는 일을 가리킨다.

47) “轟轟烈烈奇男子，爲國戕仇亦壯哉。獨立頑廉功業著，成仁取義古今哀。何由再造須羣力，日月重光恃俊才。故國宮庭宛然在，忠魂縹緲莫徘徊。”

48) 林景澍(1878-1927), 字 笑佛, 號 紫竹林, 棲霞縣 蛇窩泊村人. 오사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적이 알려져 있다.

49) 「文藝」, 『The Chindan』 No.14, 1921년 1월.

50) 인적사항 미상.

51) 「文藝」, 『The Chindan』 No.14, 1921년 1월.

그렇게 일제가 중국에 대한 침탈을 본격화하며 중국의 정세가 더욱 위급해지자 중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감정도 극도로 악화되었다. 변화 가운데 안중근 체재 시기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하늘도 정이 있다면 눈물 흘리리라,  
 어찌 진정 생명을 기리기 털처럼 가벼이 했던 말인가?  
 뒤돌아보니 기세당당했던 동지,  
 칠척 사나이가 눈썹과 수염 떨치며 높이 일어났지.  
 와신상담 나라의 원수를 갓고,  
 조국을 회복하여 잔치를 벌이리라.  
 아! 위대한 현인의 호랑이 무늬 같은 변화무쌍을 그 누가 알라?  
 한 번 노하여 바로잡으니 불타는 더위도 옮겨갔구나.  
 마른 등나무는 진창에 시들고 매서운 바람 불어오니,  
 어떠한가, 천년 열사 꽃다운 이름 드리워짐이!<sup>52)</sup>

胡蘊山<sup>53)</sup>이라는 인물이 지은 「秋風斷藤曲」<sup>54)</sup> 제하의 시가이다. 앞서 논의한 바 있는 량치차오 「秋風斷藤曲」과 같은 제목이다. 내용 비교에 적합하다. 上海에서 간행되던 『五九月刊』이라는 매체에 실렸다. 「安重根」이라는 제목의 문장을 실어 안중근과 그 의거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순국 당시 안중근과 그 모친의 의연한 모습을 함께 예찬하며 더불어 문장 후반부에 자신이 이미 지어놓은 시가를 덧붙인 것이다.<sup>55)</sup>

중요한 것은 후원산의 작품이 량치차오 「秋風斷藤曲」으로부터 제목을 차용하고, 창작 동기나 형상화 면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일제로부터 압박

52) “天若有情天應泣，豈眞性命輕鴻毛。回頭轉盼昂藏侶，七尺須鬚奮高舉。嘗膽臥薪報國讎，恢復山河奠樽俎。吁嗟乎大賢虎變誰能知，一怒直教炎威移。枯藤委泥淒風吹，何如千春烈士芳名垂。”

53) 후원산(1905-1950), 군인, 원명 胡國裕. 국민당 黃埔軍官學校 출신으로 少將까지 올랐다.

54) 『五九月刊』 15期, 1927년 2월.

55) “高麗安重根，曾留學美洲，智神勇沈。歸國，憤日本佔其領土，伊藤助虐，思欲得而甘心，以報國破家亡之恨。……臨刑之日，顏色不變，觀者黃白種人，皆爲之起敬。韓國有此母子，韓不亡矣。予曾作秋風斷藤曲，以詠其事。曲曰：” 문장이 끝나고 시가 시작되며, 위의 인용은 그중 후반부이다. 이 시는 1927년보다 조금 이전에 지어졌고, 작자는 당시 20대 초반에 黃埔軍官學校 학생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심화되는 시국 속에서 항일의식이 고조된 중국인 특히 군인으로서 일제에 대한 분노, 의거 성공에 대한 극찬, 열사에 대한 동조 등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량치차오 작품에 보이는 중립적 입장의 애도·찬양과는 다른 감정이입 단계의 詩情을 느낄 수 있다.

사실 앞 장에서 논의한 ①의거 및 순국시기의 안중근 제재 시가에서도 이미 조선에 대한 동정의 한편으로 동병상련의 정서 하에 중국에게도 점차 다가오는 위기의식을 나타내며 일제의 침략행태를 염려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엿보이기는 한다.

같은 처지라 슬픈 법, 토끼가 죽으면 여우도 슬프거늘.<sup>56)</sup>  
 답답한 마음 어찌 견디며 평소 지냈을까.  
 이에 다시 아득히 먼 이별을 원망한다.<sup>57)</sup>  
 (高旭<sup>58)</sup>의 「感韓人安重根事次道非見懷詩均」<sup>59)</sup> 중에서)

봉화 연기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  
 순망치한에 모두 근심을 감당하게 되었다네.<sup>60)</sup>  
 (羅洽霖<sup>61)</sup>의 「謹題安重根先生傳」 중에서)

이토가 한국을 감독한 지 삼년이 지나,  
 입으론 천황의 명을 받들고 손엔 채찍을 들고서,  
 한국의 산천을 탄압하여 세금 걷고 부역시켰네,  
 한국의 마을에 한국 군신들 몰아넣고,  
 한국의 아비와 자식을 속박하니 한인들은 살아도 죽느니만 못했지.  
 건아는 그 사이에 섞여 있다가 나란히 설 수 없음을 부끄러워했노라.<sup>62)</sup>  
 (長沙徐雅衡<sup>63)</sup>의 「健兒行一紀朝鮮志士安重根事」<sup>64)</sup> 중에서)

56) “冤死孤悲，物傷其類，吾與汝皆是各洞之主，往日無冤，何故害我？”(明·羅貫中，『三國演義』) 구절을 활용했다.  
 57) “物傷其類動孤悲，那堪鬱鬱常居住，況復迢迢悵別離。”  
 58) 高旭(1877-1925), 근대 시인, 南社 창립자 중의 한 사람. 字天梅, 號劍公, 江蘇省 松江府 金山縣人. 동생 高基가 그 시문을 엮어 『天梅遺集』이라고 했다.  
 59) 『天梅遺集』 중의 「未濟廬詩」에도 수록.  
 60) “烽烟猶未熄，唇齒最堪憂.”  
 61) 인적사항 미상.  
 62) “伊公監韓歷三祀，口銜天憲手鞭箠，彈壓韓山川租庸，韓閭里牢籠韓君臣，羈勒韓父子韓人雖生不如死，健兒蝨其間恥不人類齒.”

비슷한 시기의 작품들을 부분적으로 인용했다. 시가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앞부분에서 안중근 의거를 찬양하고 순국을 애도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뒷부분에서 위와 같이 문득 중국의 현실을 돌아보며 순망치한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근심하거나 일제에 대한 견제와 비난을 표출했다. 다만 이는 토끼를 빼앗긴 여우마냥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일제에 빼앗기고 스스로도 위협을 느끼는 미묘한 감정이다. 진정 '같은 처지'에서 표현한 동병상련이나 한중우의는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1930년대 초의 작품을 보면 그 결이 사뭇 다르다. 商生才라는 작자가 지은 「悼英魂」이다. '安重根與尹奉吉先生'이라는 부제가 붙었고 총 4수이다.

조선은 나라가 망했지만 아직 독립당이 있구나.  
 지사는 어찌 그리 많은지 호기가 다시 넘쳐흐른다.  
 앞서 때려눕히고 뒤로 이어가니 남들이 찬양할 만하구나.  
 슬프다 우리 중화, 차마 지난날을 생각해볼 수도 없노라.  
 만주와 몽고는 눈 깜빡할 새에 내주고 상해는 싸움터가 되었지.  
 평민이 수없이 죽건만 당국은 저항하지도 않네.  
 한 마디 구국의 소리라도 네 맘껏 목이 터지게 외쳐라.  
 잃어버린 땅 되찾는 일 몽상이 될까 너무도 두려워라.<sup>65)</sup>

네 번째 수이다. 이전 수에서 이미 안중근을 중국 고대 인물들에 비유하며 애도·찬양하고 일제의 무도함에 대해 격렬히 비판했다. 그리고는 위와 같이 중국도 만주를 빼앗기는 등 민족존망의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독립을 갈구하는 안중근과 윤봉길의 豪氣가 중국에도 더욱 절실함을 토로했다. 한국의 불행이 자화상으로 되어가는 현실을 체감하는 가운데 표출한 찬양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일제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는 1930-40년대는 의거 시점부터 상대적

63) 인적사항 미상.

64) 「韻話」, 『大夏叢刊』 1915년 제1권 제1호.

65) “朝鮮國雖亡, 尚有獨立黨. 志士何其多 豪氣復淙淙. 前撲而後繼, 堪令人贊賞. 哀哉我中華, 不堪思已往. 滿蒙轉瞬空, 上海成戰場. 平民死萬千, 當局不抵抗. 一片救國聲, 任你呼破嗓. 收復失亡地, 深恐成夢想.”

으로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시가 내용은 오히려 안중근과 한국을 더욱 동정하고 일제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비판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 더욱 더 연대의식을 피력하며 한중우의를 강조하는 동조적 경향도 나타났다. 局外者가 아닌 당사자의 정서와 경향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弔安重根」<sup>66)</sup> (王敦溪<sup>67)</sup>)  
만주가 이미 조선의 뒤를 따라가고 있음에,  
뜨거운 눈물 가슴 가득 품고 안중근을 조문한다.  
오래도록 저항하리란 결심 부질없이 말하지만,  
충혼을 위로할만한 말이 없어 너무도 부끄럽다.  
왜노들은 여전히 이리저리 도적이 되고,  
기자에게는 지금 효손이 있구나.  
다만 아직 이완용을 죽이지 못하고,  
이토를 다 죽여 없애지 못한 것이 슬프구나.<sup>68)</sup>

「朝鮮人」<sup>69)</sup> (草萊<sup>70)</sup>)  
집시인들이여, 보헤미아인들이여,  
우리는 모두 국적이 없는 사람들.  
떠돌고 떠돌고 또 곤궁하게 떠돌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집은 없다.  
우리가 푸른 바다 속에서 죽는다 해도,  
누가 우리를 동정하라, 우리를 가엾게 여기라.  
“하느님이?” 하느님은 우리 편이 아니다!  
.....  
조선인이여! 조선인이여!  
압록강의 슬픈 파도 언제쯤 세차게 울부짖을까?  
부산만큼 높은 치욕 언제쯤 씻어낼까?  
이완용의 치골은 이미 진흙으로 변했고,

66) 上海『社會月刊』1935년 1권 9기.  
67) 인적사항 미상. 단, 上海『社會月刊』1935년 1권 9기에 애국시인 王敦溪 기념 특집 ‘苦笑集’이 실린 사실은 확인했다.  
68) “滿洲已步朝鮮後, 熱淚滿懷弔重根. 空說決心長抵抗, 深慚無語慰忠魂. 倭奴依舊爲流寇, 箕子至今有孝孫. 只爲未誅李完用, 可憐殺不盡伊藤.”  
69) 『抗戰特刊』, 『文藝月刊』1938년 1권 12기.  
70) 인적사항 미상.

안중근의 눈동자는 영원히 다시 뜰 수 없는 것,  
그이는 당신들이 즉각 일어나,  
자신의 핏자국을 뒤따라,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길 바라리라.<sup>71)</sup>

「我懷念著妳的祖國 - 給朝鮮金昌滿同誌」<sup>72)</sup> (萬衆)  
구슬피, 나는 당신의 조국을 그리워합니다.  
아, 귀신이 유린하는 지옥!  
아니, 그보다 천배 백배 비참한 지옥!  
봉건, 제국, 파시즘, 갖가지 잔혹한 압박이 가해지는 오래된 나라!  
비통한 고통의 눈물을 참지 못하고,  
거꾸로 스스로의 마음속으로 sought합니다.  
나는 이 비통함이 스며든 마음을 받들어,  
그대의 조국에 바칩니다. 본디 우리 형제의 나라에!  
그대는 백두산의 흰 구름을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그대가 오셨을 때처럼 그렇게 우중충하지는 않네요.  
다시는 고향을 그리는 방랑자의 신음소리 내뱉지 않아요.  
그 신음은 벌써 민족의 공분이 되었고,  
다시 천만 명의 전투하는 안중근이 되었어요!  
천만 안중근의 끊는 피는,  
압록강 源水를 세차게 데워,  
대한이라는 오래된 나라의 국경으로 붉게 흘러갑니다!  
.....  
빛, 민족 성전의 빛!  
백두, 태행, 해남도, 두만강은 .....  
한 가닥 방어선이요, 하나의 전장입니다.  
중국, 조선, 대만은 .....  
하나의 운명이요, 유린당하는 하나의 도살장입니다.  
봉화가 노구교<sup>73)</sup>의 사자를 일깨우니,

71) “吉卜西人, 波希米亞人, 我們都是沒有國籍的人. 漂泊, 漂泊, 窮困的漂泊. 這世界沒有我們的家. 我們就是葬身在滄海裏, 誰來同情我們, 可憐我們. ‘上帝嗎?’上帝不是我們的! ..... 朝鮮人! 朝鮮人! 鴨綠江上的悲濤, 何時怒吼? 釜山一般高的恥辱, 何時洗雪? 李完用的恥骨, 已經變成泥土了, 安重根的眼睛是永遠睜不開着的, 他希望你們即刻起來, 踏着他的血迹, 爭取韓國的獨立.”

72) 江西泰和『大路半月刊』1940년 2권 1기. 萬衆이라는 작자는 필명을 사용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시를 받은 김창만은 함경북도 고향이며, 1928년 中山大學을 졸업한 중국 유학생 출신이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73) 베이징 외곽을 흐르는 永定河의 다리,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시작된 장소. 노구

아, 황제의 자손들은 모두 들끓는 쇠붙이 같습니다.  
성전을 향해 달려드는 빛, 붉은 미소의 빛이여!<sup>74)</sup>

중국인들에게 안중근에 대한 기억은 많이 열린 시기이지만, 자국이 '國恥'로 까지 일컫는 만주사변(1931)을 거쳐 중일전면전(1937)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며 민족적 위기가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새삼 안중근에 대한 애도와 찬양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항일투쟁의식을 복돋는 내용들이 많이 보인다. 더불어 시간이 지나며 구체시뿐만 아니라 백화 신체시로도 안중근을 노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일제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훨씬 격한 언어로 피해자의 분노와 비판을 표출했다. '발 씻는 대야(脚盆, Japan)<sup>75)</sup> 또는 '왜노'의 야만적 침탈에 공분하고, 그와 야합하는 서구 제국주의의 악행에 대해 울분을 표출했다. 나아가 그들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처참한 고통을 겪는 한국을 동정하면서 동시에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로라는 한중 연대의식을 피력했다. 특히 중국의 '이완용'을 경계하고 천만의 전투하는 중국인 '안중근'이 나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냈다. 안중근을 이어 중국에서 독립투쟁에 헌신하는 김창만 같은 이가 중국인들에게도 자국이 되기를 바라는 절실한 심정을 표출했다. 이 시기 안중근에 대한 애도와 찬양의 내용은 이와 같이 주로 주체적 분노와 동지적 연대의식 하에 표출된 경향이 크다.

교사변 즉 중일전쟁을 상징한다.

74) “悵然, 我懷念着你的祖國, 呵, 鬼宰割着的地獄! 不, 千百倍悲慘的地獄! 封建, 帝國, 法西, 種種殘酷的壓迫的古國! 忍不住悲痛的苦淚, 倒涌在自己悲痛的心底. 我將捧着這悲痛侵透了的心, 獻給你的祖國, 原也是我們的兄弟之國! 你總記得, 長白山上的白雲? 已不是你來時那樣的低沈, 也不再訴遊子鄉思的呻吟, 那呻吟早化成民族的公憤, 更將化成千萬個戰鬥的安重根! 千萬個安重根的熱血, 沖開了鴨綠江的源水, 濺紅了大韓古國的國門!…… 民族聖戰的光! 長白, 太行, 海南島, 圖們江…… 是一防線, 是一個戰場! 中國, 朝鮮, 臺灣…… 是一個運命, 是一個被宰割的屠場! 烽火喚醒了盧溝橋上的獅子, 呵, 黃帝的子孫, 都像沸鐵一樣. 衝上聖戰的光, 紅笑的光!”

75) 앞서 인용한 商生才의 「悼英魂」 셋째 首에서, “英脚聯盟後, 倭奴逞猖狂”(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은 후, 왜노가 성대해져 미쳐 날뛰다)라고 하며 일본을 脚으로 칭했다. 脚은 脚盆의 준말로 Japan의 역음이다. 국명에 발 각자를 사용하여 비하와 분노의 감정을 표현했다.



#### 4. 결론

안중근 의사의 의거와 순국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식민지화는 곧바로 일어나고 말았다. 자연히 일제의 제약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는 안중근 제재 시가를 비롯한 문예 작품을 거의 발표하지 못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재중 한국인은 물론 많은 중국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매체 기사문·사설 등 글쓰기와 다양한 문예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당시 중국의 저명 정치 지도자·문인들로부터 인적사항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공무원·교육자·군인·언론인·작가 및 학생 등 일반 지식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중국인들이 안중근을 제재로 다수의 문예작품 특히 시가를 지었다. 신문·잡지 매체에 일반 기사 다음으로 많은 수의 시가 작품이 실렸다.

당시까지는 중국에서 시 쓰기가 시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편적인 지적 활동에 속하는 편이었기에, 관련 시가는 일반 중국인들의 인식과 정서를 상당히 대변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작품들이 대부분 신문잡지에 실렸으므로, 안중근 의거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문제였음도 알 수 있다.

이 시가들도 기사문이나 다른 문예작품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①의거 및 순국 시기', '②오사운동시기', '③항일전쟁시기' 이 세 시기에 활발히 발표되었다. 현재까지 대략 50여 작품을 수집하여 분석했고, 당연히 계속 보완해나가야 한다. 흐름을 보면, ①시기에 가장 많이 나왔고 ②시기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졌다. 당시 반제·혁명의 분위기가 충만했던 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잠시 주춤하다가 1931년 만주사변 무렵부터 ③시기까지 특히 항일애국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위기 의식이 심화되면서 다시 유용한 제재가 되었다. 중국 근현대문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제 정세를 포함하는 시대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은 점이며, 이는 안중근 제재 시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 것이다. 비록 외국인이지만 자국의 필요에 따라 시가를 통해 평가되고 소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안중근을 제재로 한 중국 시가들에는 매우 다양한 인식과 정감이 내포되어 있다. 그중 안중근을 애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가장 비중이 크고, 그 가운데는 당연히 그가 통쾌하게 국가와 민족의 원한을 갚고 장렬하게 자신을 희생했다는 인식과

정감이 주로 담겨있다.

요약하면 중국인들은 초기에 안중근이 한국의 원한을 통쾌하게 설욕한 점으로부터 그를 애국심·독립심·희생정신의 롤 모델로서 대상화하여 애도·찬양했다. 나아가 점차 중국도 일제의 침탈을 체감하고 위기로 내몰리면서, 한국인과 같은 처지의 동병상련·감정이입의 차원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투쟁하게 하는 동지·열사의 모습으로 주체화하여 애도·찬양했다. 후속 연구에서 논의할 내용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애도·찬양한다든지 하는 냉정한 제삼자적 인식과 감정 표현에 비하면, 한국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안중근이 이토를 처단한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국가의 복수·투쟁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극악하고 무도한 국제 정세 가운데 동양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갈구한 고귀한 '사상'이 그 안에 내재해있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중국인들의 시가에서 기대할 바는 아니지만, 이를 담아낸 시가가 많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시는 노래요, 노래는 투쟁이고 위로다. 사람과 시대를 이해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안중근 외에 윤봉길이나 이봉창과 관련된 중국인들의 시가들도 있다. 안중근 관련 후속 연구 외에도 추가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參考文獻〉

- 김진욱, 「安重根 義舉를 통한 中國 知識人の 朝鮮 認識 研究」, 『中國人文科學』 제30집, 2005.
- 뉴린제·탕진, 「동아시아 현대문화 속의 한국 항일영웅 서사」, 『아시아문화연구』 제45집, 2017.
- 문대일, 「중국 현대 韓人題材詩歌에 나타난 '抗日'과 '獨立' 양상 研究」, 『세계문화비교연구』 59권, 2017.
- 朴殷植, 『安重根傳』, 1912. (윤병석 역편, 『安重根傳記全集』, 서울: 국가보훈처, 1999에 수록)
- 양귀숙외, 「梁啓超 詩文에 나타난 朝鮮問題 인식」, 『中國人文科學』 제26집, 2003.

- 玉史, 『만고의사 안중근전』, 1917. (윤병석 역편, 『安重根傳記全集』에 수록)
- 이등연·양귀숙, 「중국 근대 시기 詩歌에 나타난 朝鮮 문제 인식」, 『中國人文科學』 제29집, 2004.
- 蔣曉君, 「중국 근대문학 속의 安重根 형상 연구」, 전남대 중문과 석사논문, 2009.
- 최형욱, 「梁啓超의 〈秋風斷藤曲〉 탐구」, 『동아시아문화연구』 제49집, 2011.
- 최형욱, 「梁啓超의 〈朝鮮哀詞五律二十四首〉 探究」, 『한국언어문화』 제49집, 2012.
- 崔峰龍·許盈, 「近三十年來中國史學界對安重根研究綜述」, 『大連大學學報』 36卷4期, 2005.
- 華文貴, 『安重根研究』,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07.
- 金柄珉·李存光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5),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2014.
- 金宇鍾·崔書勉 編, 『安重根-論文·傳記資料』,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94.
- 李存光·金宰旭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文獻補編』,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20.
- 梁啓超, 『飲冰室合集』, 北京: 北京中華書局, 1936. (影印本)
- 宋成有, 「中國人士所見安重根義舉의 視覺和反應」, 『大連近代史研究』 7期, 2010.
- 蘇全有, 「安重根在中國的百年記憶評析」, 『河南理工大學學報』 18卷3期, 2017.
- 鄭洵, 『安重根傳』, 1918. (윤병석 역편, 『安重根傳記全集』에 수록)
- 鄭沅, 『安重根』, 1917. (윤병석 역편, 『安重根傳記全集』에 수록)

<Abstract>

A Study on Chinese Poetry with the Theme of Ahn Jung-geun I :  
Focusing on the Overview of the Poems and the Condolences and Praise of  
Ahn Jung-geun

Choi, Hyeong-Wook

Ahn Jung-geun's "The Harbin Incident." on October 26, 1909 is not only a historical event in East Asia, but also an important literary and artistic one. Many Chinese who lived in the same era as Ahn Jung-geun praised him, and further expressed different emotions and perceptions through various literary works and writings.

At that time, many ordinary intellectuals and students, as well as prominent Chinese

politicians and writers, praised Ahn through literary works such as poetry, novels, plays, and movies. I would like to analyze poems written by Chinese people under the theme of “An Jung-geun” and “The Harbin Incident.” I think it will be of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literature, art, and historical culture exchange.

These poems were published actively over three periods: (1) the period of incident and martyrdom, (2) the 5.4 Movement, and (3) the Sino-Japanese War. To date, about 50 works have been collected and analyzed. Looking at the flow, it appeared the most in the (1) period, and the atmosphere continued until (2). I believe this is related to the atmosphere of anti-Japanese and revolution at that time. After slowing down for a while, it became an informative subject again due to the tense atmosphere caused by the Manchurian Incident in 1931 and the deep crisis of anti-Japanese patriotism.

Chinese poems about Ahn Jung-geun contain various perceptions and emotions. The central concept among these poems is mourning and praise, since there is a mainstream perception that he repaid the resentment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 sacrificing himself heroically.

In summary, in the early days, the Chinese mourned and praised Ahn Jung-geun as a role model for patriotism, independence, and sacrifice, citing his repayment of Korea's resentment. Furthermore, when China became gradually affected by the Japanese invasion and was driven to crisis, it wailed and praised him as a comrade and martyr fighting comfort in terms of sympathy and empathy with Koreans in the same situation. It is worth evaluating compared to the cold third-party perception and emotional expression that mourns and praises Hirobumi Ito, which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up study.

Key words: Ahn Jung-geun, The Harbin Incident, Chinese Poetry, condolences, praise

이 논문은 2022년 10월 06일에 투고되어 2022년 10월 3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2년 11월 0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